

##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9장은 단지 15절의 짧은 장이라 나는 이 두 장을 하루 저녁에 다 공부할 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우 민감한 주제인 돈에 관한 문제와 헌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금에 대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번도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해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람들로 부터 돈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직접 자기 손으로 일하며, 또 그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돈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돈을 큰 문제로 삼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교회 안에서 돈이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가 떠난 후에 들어올 자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양떼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양떼들을 돌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인 그들의 배를 채우려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재정적으로 너희들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 자신의 경제적 유익을 위하여 지도자의 지위와 권위를 사용했던 자들은 교회사에 있어서 실제 문제들의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인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 문제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엄청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푸짐한 헌금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주려고 고린도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초대 교회 당시에 자칭 사도이며 선지자라고 말하며 교회를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와서는 교회를 등쳐먹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답고 관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그들의 관용을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칭 선지자라 혹은 사도들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재정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 어떤 지침을 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Didike” 라고 부르는 것을 썼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교훈으로 어떤 규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하라”고 한다면, 그 규칙은 말하길, 그가 그 만찬을 먹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 또한 만일 그들이 이를 이상을 일을 하지 않고 지내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니 그들을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이러한 협잡꾼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규칙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나는 항상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곧 파산 법정으로 향하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그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보석금으로 구출해 내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항상 너무 많이 지출을 하여 항상 궁핍했습니다. 물론 나는 사람들이 헌금하도록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세상에 있는 온갖 속임수들을 다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느꼈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절대 헌금을 요구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 번도 헌금에 대해 말한 적이 없음을 알 것입니다. 단지 안내인들이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헌금을 걷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새 목사들이 교회 직원으로 오면, 주일 아침 광고에 '이제 안내인들은 앞으로 나와 헌금을 걷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앉자마자 나는, 갈보리 채플에서는 절대 헌금을 걷지 않고, 단지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는다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그러한 실수를 단 한 번만 합니다. 헌금을 걷는 것과 헌금을 받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헌금을 큰 문제로 삼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수년 간 목회 사역에 있었지만, 이번이 아닌 지난 번 성경 전체를 공부해 갈 때 처음으로 십일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나를 끔찍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일조와 헌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라기서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습니다. 그 정한 날에 그들로 주님의 보석들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하여 피차에 말하는 것에 대해 말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에 대해 말할 때 주님은 엿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당신 이름을 말하는 것을 당신이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에 조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당신은 혹시나 그들이 당신을 아는가 싶어서 돌아보지만 그들은 단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들으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주님의 보석들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는 영감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왜 너는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주제에 대하여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드리는 자들에게 부여할 축복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 나는 그들에게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였도다. 그들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으므로 나는 바뀌어야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특권과 또 주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굉장한 이익 배당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에게서 그것을 털어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남용되고 있는 것이기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 매우 예민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질을 요청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빈곤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등의 지역이었고, 고린도는 그리스의 아래 끝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윗부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곳은 메게도냐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등 심한 시련들을 겪고 있었으나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요한이 짧은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행복은 기분 좋은 상황에 기초한 감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100불짜리 지폐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어떤 마약 중개인이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이 돈을 찾으려고 경찰서에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 이제 나의 모든 청구서들을 다 지불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청구서 하나를 지불하려고 은행으로 갑니다. 그 은행 금전 출납원이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말하기를, 이것은 위조지폐라고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행복은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기분 좋은 외적인 환경 조건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영적 경험입니다. 그것은 행복보다도 더 깊은 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외적인 환경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냐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라! 당신의 환경이 전적으로 비참할 수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그들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그들의 연보를 넘치게 했습니다.

**3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이것이 드리는 것에 대하여 열쇠가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 계속 다음 장에서도 말할 것이지만, 우리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결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며,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부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드리는 것을 원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교회에 재정적 서약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교회에 다닌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당신에게 일 년간 얼마를 교회에 헌금을 할 것인지를 서약하라고 요구하고는, 지난달에 해야 할 것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의를 주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얼마만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해야 할 헌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회로부터 빛 독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런

독촉이 너무나 싫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수표를 쓰면서, 내가 책정했던 금액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그것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드리니 아예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존중하지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바울이 나중에 말하겠지만, 주님께서서는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즐거내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hilaros로서 거의 ‘너무 기뻐서 들뜬’ 상태에 가깝습니다. 예배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서 들뜬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나,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더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드리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이 당신이 드리는 배후의 동기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 그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자원하여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장소인 성막의 설계를 주셨다고 백성들에게 말하였을 때, 그 성막 안은 금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귀고리와 팔찌 등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여(출애굽기 35:21절) 너무나 많이 가져왔으므로 모세는 마침내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출애굽기 36:3-7절).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많으니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입니다. 결코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습니다.

**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그들은 우리에게 간청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아! 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다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그들은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도로 가지고 가서 당신 자신을 위해 새 신발을 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바울에게 그들의 헌금을 받도록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곳 갈보리 채플에 있는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한번도 돈을 문제 삼은 적이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매달 운영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움의 요청들을 고려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수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슬람인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납치를 당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인 곤경 가운데에 있습니다. 남쪽 지역에 있는 갈보리 채플 교회의 목사인 에드 콘웰 과 게리 쿠시노키 목사는 일주일쯤 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단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굉장한 곤경을 겪고 있는 수단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불쌍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도와줄 풍성한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세계에 있는 믿는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여러분들은 자원하여 드리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 갈보리 채플을 축복하신 것으로 세계 곳곳에 공평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헌금을 받도록 많은 서원으로 간청하였습니다.

**5 우리의 바라던 (기대했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드리는 것은 항상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사셨다는 것을 알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청지기인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께 속한 것이고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께서는 나의 은행 계좌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은 당신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바울에게 그들의 헌금을 주었습니다.

**6 이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첫 번째 편지에 그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그들이 헌금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 들려 그 헌금을 가지고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기를 원했고 그가 거기에 있을 동안에는 어떤 헌금이라도 걷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줄 것을 다 준비해 두어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전달했고, 그는 한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디도는 헌금을 그들로부터 받기 시작했고, 그는 그 돈을 모아둘 예금 통장 같은 것에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디도가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고 했습니다.

**7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고린도 교회의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너희들은 모든 영적 은사나, 모든 언변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일이나, 성경말씀을 해석하는 지식과, 주를 열심히 섬기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들의 드리는 헌금도 풍성하게 하라.

그런 다음 그는 말하기를, **8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바울은 이것을 바르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명령으로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나는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을 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 그저 너희의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라.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에 드리는 것에 대한 본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드리는 것의 최고의 본보기이십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셨으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고, 천사들도 경배하고 숭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천사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나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양 대신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허락하는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던 사실로 보아 그들이 빈곤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만일 가난하면 양 대신에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디다. 또한 그분은 다른 사람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동전으로, 이 동전에 있는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고 물으시면서 실례를 들기를 원했을 때에도 동전이 하나도 없어서 동전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부당한 세금을 주님께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돈이 없었으므로 베드로에게 일러 말씀하시길,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 물고기 입안에서 동전을 발견할 것이라.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당나귀를 빌려야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보라,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너희를 축복하셨도다. 마게도냐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로되 그들은 관대히 주었노라.

너희는 부요한 교회를 갖고 있으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있고, 봉비는 상업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있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는 은혜에 대한 좋은 본보기이로다. 이제 너희는 이 드리는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10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의견을 표하고 있도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다. 나는 너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하고 있노라.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일년 전에 너희들이 이것을 시작하였도다. 너희들이 이 기금을 모으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완료할 필요가 있도다. 내가 곧 갈 것이라. 그러므로 원하기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기금을 이제 실천하기를 원하노라.

**11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 할 마음만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헌금에 대한 기준입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그것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기를 원하여야합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여야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13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가 모든 짐을 지기를 원치 않노라.

14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함이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너희들은 번창하고 있고 또 축복을 받고 있도다. 그러니 그들의 필요를 위해 주라! 그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도다. 그렇지만 언젠가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들은 번창하여 지고 너희들이 궁핍한 가운데에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너희에게 가지고 올 것이라. 이렇게 하여 교회 안에서 균등함이 있게 하려함이라.

15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였습니다. 많이 거둔 자들도 해가 진후에 남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적게 거둔 자들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균등하게 하십니다.

16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는 너희를 위한 이런 많은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디도도 내가 갖고 있는 이 간절함을 갖고 있노라. 너희들이 그에게 잘해 주었고 그를 영접하였도다. 디도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간절함과 관심을 갖고 있도다.

17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겠는가? 네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그 권고를 받아들였고 더욱 열성을 내어 받아들였도다. 그는 마지못해 간 것이 아니라 열성을 내어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느니라.

18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 형제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디도를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 일을 끝내라고 했습니다. 디도는 그것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함께 한 형제를 같이 보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동료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고린도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실라일 수도 있으며 또는 아볼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바울의 동력자의 한 사람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었으면 바울이 그의 이름을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종종 놓으셔서 신학자들을 바쁘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로 추측하게하고 논쟁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이 형제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를 디도와 함께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잘 알려진 형제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형제를 칭찬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모든 교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니다.

19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말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기로 그를 택하였습니다. 그는 택함을 받았고 그는 교회로부터 거둔 이 헌금을 관리하는데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20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헌금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는 헌금을 거두어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선교를 위하여 헌금이 걸려집니다. 우리는 수단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단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걷을 것입니다. 이 기금에 사람들의 풍성한 헌금으로 십만 달러가 모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글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오만 달러만 보내자 라고 합니다. 그게 보통 있는 일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흥사가 하이티에 있는 한 고아원을 위해 십만 불을 모금했습니다. 한 기자가 고아원 원장에게 그들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매 6개월마다 그들이 와서는 사진들을 찍고는 그들에게 100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TV 방송 일원들과 함께 내려와서는 사진들을 찍고 그들이 그곳에 갈 때마다 100불씩을 주지만 그들은 십만 불을 모금했습니다. 참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불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일어났었습니다. 돈은 부패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에 대하여 말할 때 매우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성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금을 사용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지혜로워야합니다. 우리 교회의 수표는 모두 두 사람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교회 수표도 쓰지 않고 모든 것은 경리부에서 처리합니다. 나는 이 두 사람의 서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다 검토하고 모든 수표를 서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적어도 그것은 나의 의무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달 경리부로부터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한 모든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헌금을 다루기를 원치 않으며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등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만일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안다면 나도 인간이라 그 사람에게 아침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어떤 비난, 또는 훼손을 받을 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이 다른 형제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이 모든 연보를 가지고 일급 호텔의 특실에 머물었다는 등의 비난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21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한다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험잡꾼들의 우편 명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이름도 그런 명부에 올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그 명부에서 제외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고 정말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우선입니다. 만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양심이 깨끗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잘못된 인식을 사람들이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려 합니다.

**22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으므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므로 디도와 다른 형제를 같이 보내는 것은 아무 시험도 없고 모든 것이 아무 의심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

**23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사도들, 초대 교회 때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들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내는 이 형제들도 바울은 그들을 사도들이라도 부릅니다.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의해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4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며, 얼마나 훌륭한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가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노라. 이제 내가 그저 자랑한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증명하라. 그리고는 바울은 민감한 헌금의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9장에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성경말씀의 다른 곳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헌금에 관한 재미있는 원칙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읽고 어떻게 드려야 마땅한지 알아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십일조에 대해서는 항상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까? 정부로부터 세금을 떼기 전의 십일조인지 혹은 세금 공제 후의 순수익금에서 십일조 드려야 하는지? 만일 내가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계속 십일조를 내야하는지? 헌금에 관하여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며 또 나의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헌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헌금에 대한 주제를 끝맺음하면서 다음 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물질의 얼마를 이번 달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돈에서 얼마를 나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기 위해 나는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금에 대하여 주신 교훈이 있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교훈에 내가 반응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분께서는 나를 축복하셨고 계속해서 내가 꿈을 꾸거나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그분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것이 주님 것임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전달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물질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일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드리고자하는 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너무나 많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풍요함과 관대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금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용해야할 굉장한 의무감을 느낍니다. 주님! 세계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달 이사들이 요청된 것들을 잘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